

PI첨단소재, 가동률 및 손익 개선 지속

- ▶ 방열시트 및 첨단산업용 실적 개선 지속
- ▶ 전분기 대비 가동률 상승에 따른 손익 개선
- ▶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 및 중화권 수요 회복 기대

<2023-11-01>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국내 폴리이미드(PI) 소재 전문기업 PI첨단소재(178920)가 2023년 3분기 매출액 614억원, EBITDA 118억원, 영업이익 42억원, 순이익 42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와 EV/2차전지 소재 등 첨단산업용 매출 확대에 따라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1.9%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6.9%로 전분기 대비 2.8%p 상승했다. 가동률은 전분기 대비 22.4%p 상승한 66.7%를 기록했다.

용도별로는 FPCB용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8.0% 상승했고, 방열시트용 매출은 장기공급계약 누적 판매량을 3분기 중에 초과 달성하며 전분기 대비 13.1% 상승했다. EV 배터리 절연용 필름과 EV 바니쉬 매출 확대 추세가 이어지며 첨단산업용 매출도 전년동기 대비 7.7% 상승했다. 제품별로는 바니쉬 및 기타 매출이 EV 바니쉬의 분기 최대 매출 달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98.3% 큰 폭으로 성장했으며, 필름 매출 역시 전분기 대비 1.8% 상승했다.

필름 9호기 및 EV 바니쉬 설비 증설 등으로 인해 차입금이 증가하며 유동비율 120.0%, 부채비율 59.9%를 기록하였으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22년말 164억 대비 2023년 3분기말 306억원으로 증가하며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을 유지했다.

PI첨단소재 관계자는 "수출 매출이 전분기 대비 11.3% 상승하는 등 중화권 중심의 수출 회복세를 보였으며, 4분기에도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 지속과 중화권 수요 회복을 기대한다"며 "4분기 중 EV배터리 절연용 필름 매출처 확대로 기존용도 수요 확대 또한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파우더 성형품 설비 완공에 따른 양산 제품 매출 발생 등으로 기존용도 수요처 확대와 신규용도 진입에 따른 국내외 고객 확장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